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약 확정

자광, 토지가치상승분 2528억원 ·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등 총 3855억원 납부키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자인 (주)자광(대표이사 전은수)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포함한 총 3855억 원을 납부하고, 사업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와 (주)자광은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주)자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여 및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제공 △설치비용과 납부 방법, 시기 △관광타워 등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자광은 지역사회 공공기여 증대를 위해 △교육 장려 △소의 계층 돌봄 △지역 문화 지원 △지역 경제 생생 등의 사업을 공사 준공 후 연간 25억 원 이상씩 20년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범기(왼쪽) 전주시장과 전은수 자광 대표가 30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부지 내 무상 귀속 시설로 약 467억원 상당의 도로와 경관녹지, 근린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토지가치상승분의 100%인 2528억 원 중 1100억 원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홍산로 지하차도 △홍

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마전들로 교량 신설 △세내로 확장 △효자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토지가치상승분 중 나머지 1428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중 현금으로 분할납부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자광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약 300억 원 상당의 전주 시립미술관을 건축해 전주시에 기부채납키로 하는 등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총 3855억원 상당의 공공시설과 현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동시에 이번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공사 시 하도급을 포함한 도급공사와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은 지역업체 30% 이상 무상 귀속 및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공사 시공 시 지역업체를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협약서에 사업시행을 위한 안전장치의 성격으로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공공기여 이행 계획 제출 △착공 후 30일 이내에 책임 준공확약서, 이행보증증권 및 담보설정 등의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김옥기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연말을 맞아 지난 26일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김승준 미술사의 '윈터 매직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전주 JB문화공간, 김승준 미술사 초청 ‘윈터 매직 쇼’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연말을 맞아 지난 26일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김승준 미술사의 '윈터 매직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술과 서커스가 결합된 독창적이고 섬세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김승준 미술사는 우리 지역 출신의 젊은 미술사로 현재 미술전문컴퍼니 아트릭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연극배우로도 활동 중이며, 'TV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 '아침마당'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 날 미술쇼는 7세 이상 어린이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1부

신비로운 미술쇼와 2부 '달라이트 미술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됐다.

1부 미술쇼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찬 스토리를 바탕으로 년별 마임(비언어적 퍼포먼스)을 통해 클라운(광대)과 미술사 두 캐릭터를 번갈아 연기하는 색다른 미술쇼가 펼쳐졌다.

2부에서는 전 관객이 두 가지의 미술 도구를 가지고 '달라이트 미술'을 배우는 대규모 원데이 클래스가 이어졌다.

60여 분의 공연 동안 미술쇼를 즐긴 120여 명의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올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겼다. /오만호 기자

겨울 시설감자 안정생산 재배관리 요령 소개

농진청, 5도 이하에서는 이중 시설서 수확 재배하거나 입구에 비닐 커튼 달아 예방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겨울철 시설(하우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겨울철 시설감자는 10~12월에 심어 3~5월 단경기에 출하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하는 감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저온과 폭설, 이른 봄철 환기 불량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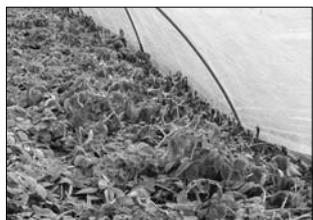
한창 썩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1~2월에는 저온 피해를 보기 쉬우므로 보온에 유의한다. 시설 내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잎과 줄기 생장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한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고 이후 온도가 올라가면 회복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확재배하거나 시설 입구에 비닐 커튼을 달아 급격히 떨어지는 밤 온도에 대비해야 한다. 수확

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은 이중 하우스 안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온도를 유지한다.

한파가 예보되면 물 대기를 해 시설 내 상대습도를 높여준다. 물 대기는 재배 중 1~3회 실시한다. 썩이 나을 무렵에 처음 물 대기를 하고, 이후 토양 수분함량과 식물체 생육 상태를 고려해 추가로 물 대기를 한다. 너무 늦게까지 물 대기를 하면 감자 덩이줄기(괴경)가 썩을 수 있으므로 덩이줄기가 커지는 시기 중반(괴경 비대 중



기) 이전에는 마친다. 폭설로 하우스 사이 공간에 많은 눈이 쌓이면 지붕에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못해 시설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쓸어낸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연동 하우스* 재배를 피하고, 오래된 시설은 지주대를 설치해 미리 골조를 보강한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전문가 24명 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도 제6차 자산운용전문가 공개 모집을 이달 30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

모집은 수탁자책임, 해외주식,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직급별로

책임운용역(5명), 전담운용역(19명) 등 총 2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중 1명은 인프라투자 분야의 책임급 해외사무소 전문인력으로 싱가포르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채용은 △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

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 과정은 지원자가 이름·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사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 조회, 신원조사 등이 이뤄진다.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홈페

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우편·방문·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모집 분야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직무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분야별·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aT, '2025 K-푸드 페어' 참가업체 모집

내년 1월 14일까지... 미·중 등 8개국 1:1 바이어 매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025년 8개국 K-푸드 페어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농수산물 수출업체 300여 개사를 새해 1월 14일까지 모집한다.

K-푸드 페어는 농식품부와 aT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통합 마케팅 사업으로, 수출시장 거래선 발굴을 위한 'B2B 수출상담회'와 K-푸드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B2C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함께 추진하며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2025년에는 △미국 LA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 뭌바이 총 8개국 8회 개최하며, 중국 서부 내륙 거점도시 시안을 비롯해 신규

지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뭌바이에서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aT는 2024년 미·중·일·아세안·유럽·중남미·중동 등 8개국에서 8회의 K-푸드 페어를 개최했으며, 총 282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3억 7999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5528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달성했다.

참가업체는 △사전 온라인 바이어 상담 매칭 지원 △K-푸드 페어 상담장 내 상담 공간배정과 기본 장치 제공(부스 또는 테이블) △현장 1:1 바이어 상담 매칭 지원 △업체별 통역원 1인 배정 △현지 소비자 마케팅스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K-푸드 페어 참가 관련 자세한 안내 사항은 aT 수출중심지원시스템 누리집의 K-푸드 페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